



이야기가 익어가는 고향집

# 가족이 힐링이다

추석 전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적한 시골의 풍경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이 계절이야말로 자연이 빛은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달빛에 비친 실루엣이 아름다운 이 풍경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함께할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는 꽉 막히지만 고향을 찾는 이들의 모습에는 짜증이 없지 않습니까. 평소 같았다면 모두들 얼굴을 붉히고 신경질을 내겠지만 이날 만큼은 모두 웃는 얼굴이죠.

고향 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과 손자를 기다립니다. 부엌에는 맛있는 고기가 익고, 가족을 넉넉히 먹고 남은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섬돌 위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오순도순 술 잔을 기울

여도 좋을 날입니다. 달빛을 희롱하며 깊은 밤까지 이야기 꽃을 피워 봅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고 걱정합니다. 범죄가 흉포화하고 가족공동체가 파괴되면서 가족이 정담을 나누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는 기능을 잃었다지만 가족은 언제나 정겨운 이름입니다.

가족은 정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보름달입니다. 가족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힘들고 절망이 밀려와도 사랑받는 가족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밤은 아름다운 밤, 추석 전야입니다.

/글=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